(8) 삼현의 만남과 학문

강민우: 삼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송익필: 삼현은 각각 한 살 터울입니다. 송익필이 1534년, 성혼이 1535년, 이이가 1536년 생입니다. 세상을 떠난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이이가 49세로 가장 먼저 별세했고, 이어 성혼이 64세로, 제가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이와 성혼은 같은 파주 출신으로, 30년 동안 혈육 못지않은 우정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고양 출신인 저는 이이·성혼과 언제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는 기억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이가 23세(1558) 때 별시에서 <천도책>으로 장원급제하였을 때 선비들이 천도책에 대해 묻자, 이이는 "송익필이 고명하니 그에게 묻는 것이 좋을 것이다"(『송자대전』 권172)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558년 이전에 삼현의 만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강민우: 삼현의 집안 배경은 어떻습니까.

송익필: 출신 배경을 보면, 이이는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다지 현달한 집안은 아닙니다.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李元秀)의 행장은 짓지 않으면서 어머니 신사임당의 행장을 지은 것을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이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사실상 독학으로 학문을 이룹니다. 이에 비해 성혼은 조광조의 수제자인 성수침의 아들로, 정몽주로부터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의 적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강민우: 우리나라 도학의 정통을 이어받아 적전(嫡傳)이 되고, 아버지의 학문을 계승하여 부자가 일세에 명성을 날렸다는 것이 바로 성혼과 이이의 다른 점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영남 유학의 종주인 이황에 대한 존경이 남달랐습니다.(『우계연보보유』 권1) 이황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 했던 이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적·학문적 배경은 뒷날 이이와 성혼이 학문관과 출처관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강민우: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송익필: 저의 경우는 할머니가 천민 출신인 데다가 아버지 송사련이 출세를 위해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었던 탓에, 사대부 가문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이이·성혼과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뚜렷한 사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이룬 점은 이이와 같습니다.

강민우: 집안 배경이 다르니 성격도 달랐겠군요.

송익필: 이이는 성격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저 역시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의욕적이어서 크게 출신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도통을 이은 엄격한 가문에서 자란 성혼은 늘 신중하고 겸손합니다. 이것은 학술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이와 성혼이 몇 년에 걸쳐 '사단칠정논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혼에게 있어서 이이는 학술적으로 어려운 상대였으므로, 성혼은 이이와 학술토

론을 하면서 저와 의견 교환한 예가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와는 본격적인 학술 논변을 전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술적 조언자 또는 중재자로 성리학·예학·경세론 등에 관해 질의하면 의견을 청취합니다.

강민우: 이들이 선생님에게 코치를 받은 적도 있다지요. 선생님을 학술 토론의 상대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한 수 위로 여긴 듯합니다.

송익필: 성혼은 이이와 제가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을 늘 불만으로 여깁니다. 특히 이이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즉 남의 말을 듣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늘 지적하면서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이의 학문적 태도에 대한 성혼의 비판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성혼은 이이가 '천리(天理)를 함양하는 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착실함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수양 공부에서뿐만 아니라 궁리 공부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민우: 이이는 성혼의 학문적 특성을 실천이 돈독하고 확실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지요. 이것은 독실한 인품이 바탕이 된 데다 이황의 실천적 학풍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송익필: 이이는 자신과 성혼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리상으로 깨우친 점에서는 내가 성혼보다 나아서 성혼이 나의 설을 많이 따랐다. 그러나 나는 성격이 풀리고 느려서 알고는 있어도 능히 실천하지 못하는데, 성혼은 알고 나면 곧바로 하나씩 실천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내가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두 사람의 기질이 같지 않은 까닭에 학문을 성취한 것도 다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강민우: 성혼은 지극히 우둔한 사람과 총명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면서, 전자를 자신에 후자를 이이에 비하였다지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의 성리학에 관한 식견을 총명한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이이는 학문이 무르익기도 전에 저술에 힘써서, 그에 따른 함양 공부를 등한시한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는 일찍이 이황이 이이를 보고 "오곡의 열매가 익기도 전에 가라지와 돌피 세상이 될까 우려된다"라면서 이이의 총명이 남들보다 뛰어난 나머지 실천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것과 통합니다.

강민우: 성혼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이는 한편으로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성리설에 대해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지요. 도리어 성혼이 자신의 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지요.

송익필: 이이는 성리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는 성혼이 주자의 혹원혹생(或原或生)의 설을 깊이 음미한 뒤에 사단·칠정을 주리(主理)와 주기(主氣)로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형세의 강약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도리로서 말해야 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황간의 설을 가지고 강적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더욱 희롱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제 만약 도리로서 구하지 않고 강약으로만 본다면 한 사람의 이황이 열 사람의 이이를 이길 수

있다. 하물며 황간까지 합세하여 도와준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는 뭇 호랑이가 한 마리의 양을 잡는 것과 같다."

강민우: 사단과 칠정에 대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요.

송익필: 황간과 마찬가지로 성혼은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구분되는 두 가지 정으로 보지만,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하나의 정으로 봅니다. 이이에 따르면, 정은 칠정 하나이고 그 가운데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과 칠정은 두 개의 정이 아니라,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되는 하나의 정입니다. 그러나 성혼은 '도심은 성명에 근원하고 인심은 형기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주자의 말에 근거하여, 사단은 리에 근원하고 칠정은 형기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리에 근원하는 사단과 형기에서 생겨나는 칠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리에 근원하므로 '리가 발한 것(理發)'이고 기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기가 발한 것(氣發)'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입니다. 이와 달리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도 기가 발한 것이고 칠정도 기가 발한 것이므로 '기발 하나(氣發一途)'가 됩니다.

강민우: 성혼은 이이뿐만 아니라 송익필 선생에 대해서도 경계하였다지요.

송익필: 한 번은 다정다감한 성혼이 연우박견(燕遊拍肩)의 고사를 빌어 저의 행동거지를 경계합니다. 이는 '한가히 지내면서 손뼉을 치거나 어깨를 들썩인다'라는 것으로, 학문에 힘쓰지 않고 놀기에 힘쓴다는 기롱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과한 비판을 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습니다.

강민우: 세 사람의 우정은 솥의 세 발과 같이 어느 한쪽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두 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실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비유할 만합니다. 평생토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간에 비판자로 자처한 것은 궁극적으로 친한 벗을 책비(責備)하기 위함입니다. '책비'란 상대방이 모든 일에 허물이 없이 다 잘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춘추』에서 말한 벗을 사귀는 도리의 하나입니다.

강민우: 삼현의 우정을 말하면서 정철과의 교우관계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송익필: 우리 세 사람은 정철과 오래도록 친분을 쌓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서인(西人)이라는 노선이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제멋대로이며 정감적인 정철이 함양 공부를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비판합니다. 특히 성혼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성혼은 돌격장 같은 정철의 성격에 매우 우려를 표하곤 합니다. "정철은 주색에 깊이 빠져 나날이 심합니다. 관직이 비록 높다 해도 세상 인정이 더욱 좋지 않으니 딱하고 딱합니다. 이이가 정철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나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치욕을 돌보지 않으니 어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우: 일찍이 정철은 아들 기명(起溟)과 종명(宗溟)을 송익필 선생의 문하에서 나아가 배우도록 하였다지요.

송익필: 정철은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고 합니다. "송익필이 반드시 『근사록(近思錄)』으로써 배우게 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랴. 이는 장차 사람 된 이치를 가르쳐서 너희에게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벼슬이나 구하고 과거 공부에 전심하여 글 짓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면, 내가 하필 너희를 송익필의 문하에서 배우도록 권하랴. 너희는 아비가 스승을 가린 뜻을 생각하고, 또한 스승의 성의를 보아 옛것을 배우고 성현을 바라는 이치로써 자신의 임무를 삼는 것이 좋지 않으랴."

강민우: 선생님은 정철이 한 나라의 정승임에도 인간적인 결함을 지적하였다지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정철은 천리와 인욕의 경계에서 싸워보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구봉집』 권5)고 하여 그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봉록을 사양하는 용기를 주색을 금하는데 옮기고, 남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근절하며,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그 부족한 바를 두려워하시라. 또 남을 미워하는 성질을 억제하고, 그 행실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친구들을 가볍게 여겨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강민우: 이것은 나이가 서로 비슷한 벗 사이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 본인만 성덕(盛德)군자가 되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친구까지도 그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정철 역시 이러한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도리를 다했겠군요.

송익필: 예부터 내려오는 벗 사이의 도리를 우리처럼 실천한 사례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이가 죽자, 주자의 말처럼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학문에 대한 완성의 길을 함께 닦아 나가길 30년, 서로 변치 않으면서 자기를 가장 잘 알아준 친구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화답해 주고 수작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마치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강민우: 이이는 봉록으로 받은 쌀과 콩을 선생님께 보내며 우정을 돈독히 했다지요.

송익필: 이러한 사실은 삼현이 각각 주고받은 편지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성혼은 한약재를 직접 수확했다고 보내기도 하고, 물고기와 소고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를 받고 약재나 말린 노루고기를 성혼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학문을 강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양식과 반찬·약재들을 주고받으며 사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인간적 정을 나누었습니다.

강민우: 따뜻한 정성으로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삼현의 참된 우정에서 인간적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송익필: 저는 성혼에게 직(直)으로써 함께 강마할 것을 말합니다. "직하지 아니하면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부모를 모심에 직으로써 하고, 임금을 섬김에 직으로써 하며, 붕우를 접

함에 직으로서 하고, 처자를 대함에 직으로써 하여 직으로 살고 직으로 죽는다."(『구봉집』 권3) '직'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도를 현실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직입니다. 충효의 도리도 직으로써 행하고, 벗을 사귐에도 직으로써 하여, 직으로 살고 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저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제가 성혼과 이이를 벗으로 임하는 마음가짐에는 '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직'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송익필: 바르고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천리의 성품이 바로 '직'입니다. 일반적인 본성 또는 성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직'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은 본래 선하지만, 더러 기의 청탁(淸濁)으로 막히고 통하지 못하여 그 선한 본성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가르침을 통해 막히고 통하지 못하던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키면, 그 본래 선한 본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직'이란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므로 본래 선합니다.

강민우: 이렇게 볼 때, '직'은 유가의 선이요, 인(仁)이며 성(誠)과 상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공자는 『논어』에서 "인간의 태어난 자연 상태가 직이다."(『논어』「옹야」)라고 합니다. 직이란 정직한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그것은 인(仁)이라 해도 되고, 선이라 해도 되고, 성(誠)이라 해도 됩니다. 천리 내지 천명을 소유한 인간의 본래성, 혹은 인간의 본심 그 자체는 곧고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자는 "직으로써 원한을 갚을 것"을 말하는데(『논어』「헌문」), 이것은 '직'의 본성이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민우: 공자는 '직'을 효의 도리로써 해석하기도 하지요.

송익필: 공자는 "우리 당의 정직은 이와 다르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그 속에 정직이 있다"(『논어』「자로」)라고 합니다. '직'이란 인륜의 기본인 효의 도리로서 '인'을 실천하는 바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자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곧 '인'의 실천입니다. 이처럼 '직'은 공평무사한 천도(天道)이면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인도(人道)가 되고, 또 사사로운 인욕을 제거하는 수양의 방법이 됩니다.

강민우: 또한 선생님은 성혼과 이이 사이에서 학문적 교량의 역할을 하였다지요.

송익필: 저는 성혼과 이이의 사이에서 성리학·예학·경세관·출처의리, 그리고 수양 방법 등 실천적인 여러 면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교량적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두 사람이 물으면 제가 대답 해주는 위치에 있었다고나 할까요. 『삼현수간』의 편지글을 분석해 보면, 성혼이 저에게 수기(修己)에 대해 질문한 편지가 4편, 성리에 대한 문답 글이 8편, 예법에 대해 질문한 글이 13편, 출처 의리에 관해 질문한 글이 15편, 경세에 관한 글이 3편, 윤리강상에 대한 글이 3편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저와 이이가 주고받은 편지는 성리에 대한 글이 2편, 예학과 관련한 글이 4편, 경세에 관한 글이 8편, 출처 의리에 관한 글이 3편 있습니다. 대부분 성혼과 이이가 저에게 묻고 제가 대답한 것입니다.

강민우: 이처럼 삼현은 학맥의 연원이 다르고 학문과 출처 의리와 신분,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서로 다르지만, 어려서부터 평생 변치 않는 우정을 지속하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이이가 일찍 죽기까지 30여 년 동안 그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학문과 수기 및 출처 의리와 경세 등 전반에 대해 격려하면서 우정을 지켜온 것입니다.

강민우: 그래서 삼현의 우정은 중국 송나라의 주희·여조겸·장식과 비유되어 국외에까지 흠모의 대상이 되어 후세 유학자들의 추존으로 이어지고, 아울러 21세기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